

청소년의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인생태도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in Early Recollections and Life Position of Adolescence

김미례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Mi-Rye Kim(mirkim21@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초기기억에 나타난 개인심리학의 생활양식과 교류분석의 인생태도와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녀 중학생 409명(남 201, 여 208)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생활양식변인과 인생태도 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양식, 인생태도 하위 변인들 간에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인정받기의 생활양식은 자타긍정의 인생태도와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에 잘지내기, 조심하기의 생활양식은 자타부정의 인생태도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변인의 차이를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본 결과,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정받기 생활양식을 더 유지하고 있었으며, 인생태도의 경우도 모든 하위요인들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생활양식과 인생태도변인의 관계 탐색을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인부정은 잘지내기, 타인긍정과 자기긍정은 인정받기, 자기부정은 조심하기 생활양식이 가장 높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와 함의와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청소년 | 초기기억 | 생활양식 | 인생태도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in early recollections and life position of adolescenc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409(male 201, female 208) middle school students. To analyze the data, factor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proved tha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ose variables between lifestyle and life posi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articular, to BSI & WR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 & U+, while GA & BC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 & U-. Second, U- had greatest influence on GA, I+ & U+ had greatest influence on WR, I- had greatest influence on BC.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discussion and implication for further research were suggested.

■ keyword : | Adolescence | Early Recollections | Lifestyle | Life Position |

I. 서론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 및 신체적 변화 등 심리 내·외적으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 이 시기는 우울, 불안, 위축감, 신체화 증상 등의 내면화 및 비행, 폭력, 공격성 등의 외현화 부적응 행동 등이 유발되기 쉽다[1-4]. 특히 청소년기 발달상의 문제들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어기제 사용의 증가[5][6] 및 이후 성인의 발달과업 수행에도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친다[7][8]. 이와 관련하여 적응적 삶의 태도 형성과 관련이 있는 심리내·외적인 변인 및 이 변인에 내재된 긍정적 자원을 탐색하여 조력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1][9]. 심리학에 있어서 긍정심리학의 대두도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인식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낙관적이고 협조적인 즉, 긍정(OK-ness)으로 흐르고 있다[10][11].

이미 상담심리학의 제이론 중 Berne이 창안한 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 TA)은 인간은 아동기에 인생태도에 근거하여 삶에 대해 자율적인 승자, 부적응적인 패자, 중간자적인 순응의 세 가지 인생각본을 쓰기 시작하며, 청소년기에 그 내용이 수정 또는 정교화된다고 하였다[12]. 이를 뒷받침하듯 TA는 인간에 대한 긍정성, 자율성, 변화가능성의 철학 하에 지금까지 포기나 유보된 자각, 자발성과 친밀성을 회복하여 초기 어린 시절 잘못된 조건에 의해 형성된 생활양식을 건강한 생활양식으로 재결정할 수 있는 OK-ness적인 인생태도로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13].

건강한 생활양식은 사회적인 상호작용과정에서 발달되며, 삶의 목표를 성취한 자아실현인의 삶의 태도와 관련된다[14]. 이에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인생태도를 조력해주기 위한 상담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TA의 인생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생활양식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심리학자인 Adler는 기본적인 생활양식은 초기 아동기 신체기관의 활동과 함께 발달하여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방식 등에 의해 형성되며[15], 보통 변화되지는 않으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력하는 경우 언

제는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지금까지 국내의 청소년 대상 생활양식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아틀러 이론의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에 근거한 연구들[16-18]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 개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양식은 무의식적으로 부적응적인 삶의 태도로 이어져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기에 생활양식의 구체적인 단서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양식의 탐색과 관련하여 투사적 특성이 강한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은 내담자로 하여금 초기 어린시절의 기억을 저항 없이 회상하도록 해준다[19]. 무엇보다 초기 어린 시절 주양육자 및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인생태도는 한 개인의 생활양식을 초월하지는 못한다[13]. TA학자인 Harris[20]는 부정적인 인생태도 형성의 근원인 어린 시절의 비극적인 경험, 즉 불건강한 생활양식의 근원을 파악하여 현재 어떻게 부정적인 인생태도가 유지되어 왔는지 탐색하기로 결정한다면 긍정적 태도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한 개인의 삶의 지각방식인 생활양식이 나와 타인 및 세상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결론을 내리는 인생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 변인과 관련하여 인생태도 변인에 대한 탐색이 구체적으로 수행된다면 청소년의 긍정적 삶의 태도 형성과 유지 등 적응차원을 조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심리학이 인간행동 이해수단으로 강조한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치판단을 드러나는 TA 인생태도와의 관련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 이기에 본 연구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이 인생태도를 예언하는 중요한 개인 내적인 변인으로 보고 생활양식이 인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용 TA 자타 긍정 인생태도 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안 및 개인상담 개입방안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하위 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어떤가? 둘째,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 변인과 인생태도 변인들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인생태도 하위변인들인 타인부정, 타인긍정, 자기긍정, 자기부정에 유의미한 생활양식 하위변인들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

생활양식(life style)은 삶에 대한 태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의 방식 및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견해와 관련이 있다[14][21][22]. 또한 한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 의식, 무의식적 인지도식과 신화 등이 일관되게 표현되는 성격적인 통합체이다[14][23]. 특히 생활양식은 어떤 행동을 자신만의 가장 적합한 행동이라 여기는 사적 논리를 드러낸다. 이 사적 논리는 초기경험에 따라 자신, 타인, 삶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선택적 지각에 의해 강화시켜 삶의 인생목표, 계획, 행동 등을 설계하는데 있어 지침서로 작동한다[14].

생활양식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의 고저에 따라 유용한 유형과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양식 유형이 동시에 존재한다[22]. 사회적 관심은 공동체 의식 및 공감, 평등의식,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등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람의 표본이기에 정신건강의 척도로서 활용된다[14][22]. 한편 활동수준은 삶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으로서, 이 에너지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21][22]. 이와 달리 개인 내 또는 환경 내 요인들에 의해서 사회적 관심 및 활동수준이 결여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열등한, 과잉보호된, 양육태만된 생활양식이 형성될 수 있다[22]. 특히 낮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은 스트레스 상황임을 반영하며 부적응 행동을 증가시킨다[24][25].

생활양식의 탐색에는 사례사, 평정척도, 가족구도, 초

기 기억, 관찰 등이 주로 활용된다[22]. 이러한 탐색도구 가운데 초기기억(early recollection)은 가족의 일상사, 상호작용 양상 등에 대해 초기 6개월부터 8세까지 기억을 저항 없이 선택적으로 회상하도록 함으로써 한 개인의 삶의 목적과 일치하는 행동 단서를 찾아내는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다[19][21].

행복한 초기기억의 회상은 유쾌하고 낙천적인 생활양식을 반영하며, 불행한 초기기억의 회상은 부정적인 생활양식을 반영해준다[22]. 또한 초기기억은 한 개인의 일정한 사고·감정·행동 방식[26], 기본적인 생활양식의 출발점과 오류의 근원탐색[19][27], 현재의 마음상태[28]와 삶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 준다[14].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 탐색도구 중 Wheeler, Kern & Curlette[29]가 개발한 BASIS-A는 아들의 개인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이다. BASIS-A는 소속하기/사회적 관심(Belonging Social Interest:BSI), 잘지내기(Going Along: GA), 책임맡기(Taking Charge: TC), 인정받기(Wanting Recognition: WR), 조심하기(Being Cautious: BC)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들은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인 공동체감 즉 소속의 욕구가 충족된 경우 위험을 감수하고자라도 자신의 문제를 용기 있게 직면한다고 보았다[30]. 반면에 소속하기/사회적 관심의 부족은 문제아동, 자살, 신경증, 정신병, 범죄, 알콜을 중독자 등의 다양한 부정적 인생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31].

2. 인생태도

인생태도(life position)는 초기 어린 시절에 결정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으로서 결정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된다. 또한 아동기 초기경험을 토대로 내린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 초기결정은 살아가면서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에 의해 강화되어 중요한 선택 및 자신과 타인존재에 대해 긍정·존중·인정·수용·가치·신뢰의 의미를 내포하는 OKness 또는 부정의 Not-OKness 여부를 드러내는 인생태도에 반영된다[20][32-35]. 또한 인생

태도는 삶의 방향 및 경험 해석의 틀을 제시해 주기에 삶의 의미와 질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36].

Berne의 관점에 의하면 인생태도의 유형은 자기긍정(I'm OK), 자기부정(I'm not OK), 타인긍정(you're OK), 타인부정(you're not-OK)의 네 가지의 속성 하에 다시 자타긍정(I'm OK, you're OK), 자기긍정·타인부정(I'm OK, you're not-OK), 자기부정·타인긍정(I'm not OK, you're OK), 자타부정(I'm not OK, you're not-OK)의 네 가지 태도영역으로 구분된다[37][38]. 특히 자타긍정은 자기성장과 새로운 정보수용 등 적응적인 영역으로서[39], 치유적 효과가 있으며[40], 자신의 가치 인정과 상호존중의 인간관계를 조력하는 가장 건강한 태도이며[35], 자유·평등·민주주의·행복과 인간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 요구된다[41]. 이와 자기긍정·타인부정은 편집증과 심한 경우 살인이라는 반사회적 적응을, 자기부정·타인긍정은 강박증과 연극성 장애를 수반하면서 우울이 심한 경우 자살로 결말을 맺고, 자타부정은 수동-공격성과 정신분열 상태에서 심한 경우 미쳐버리고 마는 부적응적인 인생태도 영역이다[33][34][39][42]. 대체로 일상에서 사람들이 펼치는 심리적 게임, 인생각본과 운명은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인생태도 중 하나에 기초한다[41][43]. 이와 달리 White[44]는 인생태도를 쉽게 바뀌지 않는 영구적인 것으로 보는 성격인생태도와 상황에 따라 의식적인 결정에 의해 하루에도 여러 번 이동한다는 감정차원의 표면적/일시적 인생태도로 구분하였다. 또한 모든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인생태도가 더 요구된다고 여긴 Davidson[45]은 I'm OK, You're Ok, They're Ok라는 견해를 8가지 인생태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3차원의 긍정성 다각형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제까지 국내 청소년 대상의 인생태도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인간관계만족도[46], 심리적 안녕감[47], 상담기대감[48], 진로인식[49], 자아개념[50]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인생태도를 살펴본 연구들은 드문 실정이다.

이에 몇몇 국내 유사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소속하기/사회적 관심은 건강한 교류, 인정받기는 자타긍

정의 자율적 삶인 친밀, 규칙이나 윤리를 준수하는 등의 의식, 생산적인 활동의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반면에 잘지내기와 조심하기는 불건강한 교류 및 심리적 게임과 폐쇄적인 삶의 양상을 예측하는 변인이며[51], 소속하기/사회적 관심과 인정받기 변인이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었다[52]. 다음으로 국외 선행연구들의 경우 어린 시절 가족에 대한 초기기억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관심이 높았으며[53], 비행청소년의 초기기억은 심각한 규칙과파괴 및 개인적인 상해, 낮은 신뢰감과 자기충족감 및 통제력 부족 등과 관련이 있었으며[54], 초기기억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품행장애, 불안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신경증적 성격장애 등의 적응관련 제 문제와 상관성이 있으며[55], 소속하기/사회적 관심은 우울과 부정상관이 있는 반면에 조심하기는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56]. 이와 같이 국내외 유사 선행연구들은 Adler의 핵심이론인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삶의 적응양상인 인생태도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J도의 3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456명을 무선표집하여 실시하였으며, 자기 보고식 지필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통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연구 동의를 구한 후 그 취지에 동의한 담임교사들이 자율학습 시간에 학급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스스로 기록하게 하였다. 응답 시 비밀보장과 응답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로 하여금 그 설문지를 봉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456부가 모두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문항중 응답이 누락 되었거나 불성실 응답자료 47부를 제외한 나머지 409부에 대한 극단치 검색결과 극단치가 나타나지 않아 총 409부를 최종 분석 자료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표본 특성은 다음에 제시된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특성(N=409)

변인	구분	명(%)
성별	남	201(49.1)
	여	208(50.9)
학년별	1학년	135(33.0)
	2학년	135(33.0)
	3학년	139(34.0)

2. 측정도구

2.1 생활양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초기 아동기 경험에 대한 지각과 신념에 기초한 생활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Wheeler, Kern과 Curlette[29]가 아들러 개인심리학의 기본 개념에 충실하고 초기기억을 통해 생활양식 요인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표준화한 BASIS-A(Basis Adlerian Scales for Interpersonal Success)를 활용하였다. 다섯 가지 생활양식 요인은 소속하기/사회적 관심(BSD), 잘지내기(GA), 책임맡기(TC), 인정받기(WR), 조심하기(BC)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 개발자들의 생활양식 분류 방식을 그대로 따른 오익수[52]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44문항 중 검사도구가 개인심리학의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 이론 및 그 요인을 잘 반영한 검사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주성분분석법과 베리맥스 직교회전법에 의해 실시한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50.76%가 설명되었다. 단, 소속하기/사회적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문항 중 6번 문항은 모든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30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이 문항을 제외한 총43문항만이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요인구조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본 연구에 최종 적용되었다. 그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오익수[52]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α 는 .68-.84이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며, 하위요인별 점수범위는 8-55점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문항 신뢰도는 .87, 하위척도별로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85, 잘지내기 .76, 책임맡기 .89, 인정받기 .86, 조심하기 .86으로 나타났다. 그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생활양식 척도의 문항과 요인별 부하량

NO	문항내용	요인 1	요인 1	요인 3	요인 4	요인 5
		책임맡기	인정받기	조심하기	소속하기/ 사회적관심	잘지내기
21	앞장서 책을 읽었다.	.842	.036	.049	.186	.106
19	다른 아이들을 생략 대장 노릇을 했다.	.835	.064	.027	.188	.148
20	큰 일을 가진 자를 노렸다.	.820	.062	.097	.177	.140
18	다른 사람들에게 자서는 것을 좋아했다.	.726	.121	-.014	.160	.207
22	다른 아이들을 용서하고 싶었다.	.718	.076	.094	.009	.189
23	사람들에게 누가 되었는지 과거기를 알았다.	.708	.039	.175	.040	.183
25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아이들을 시킬 수 있었을 때 나 스스로 중요하다고 느꼈다.	.632	.137	.018	-.012	.156
24	학교생활에 나가고 싶었다.	.537	.318	-.039	.168	.121
6	라다가 되면 안된다는 것에 어느 쪽인가 생각했다.	-.292	-.089	.101	.249	.087
36	선생님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랐다.	.073	.725	-.038	.199	-.033
28	내가 일을 잘 해낸 것에 대해서 주목 받는 것을 좋아했다.	.108	.721	-.105	.151	.125
34	부모에게 인정받길 원했다.	.053	.681	-.240	.038	.193
3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대해 신경을 썼다.	.081	.657	.012	.029	.114
33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꼈다.	.002	.627	-.346	.112	-.059
27	성공했을 때 나 스스로 중요하다고 느꼈다.	.025	.612	-.105	.161	-.024
26	나에게 요청되던 일을 잘 해내려고 하였다.	.096	.587	-.155	.194	-.158
31	어른들을 화나게 하려는 줄압게 했다.	.058	.578	-.187	.220	-.166
32	내가 한 일에 대해 어른들이 찬양하는지 찬양하지 않은지 신경을 썼다.	.192	.575	.124	.094	-.171
29	상대방이 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다.	-.041	.537	-.112	.153	.068
30	주인을 팔기 위해 여벌 바르게 행동했다.	.139	.508	.102	-.048	.064
39	가족들과 잘 적응하지 못했다.	.034	-.166	.786	-.098	.142
41	부모님의 마음을 생하게 하고 싶었다.	.116	-.191	.770	.079	.093
40	부모님은 내게 화가 내었다.	.042	-.124	.737	-.026	.094
42	부모 중 한 분을 부러워하였다.	.065	-.082	.724	-.061	-.030
44	집에서 재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 보였다.	.009	-.057	.718	-.251	.093
38	부모님은 내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다.	.098	-.143	.678	-.020	.149
43	부모님을 무시하였다.	.024	-.110	.632	-.114	.083
37	부모님께 자랑할 수 없었다.	-.049	-.071	.611	-.035	.234
4	집안 내에서 잘 어울렸다.	.103	.167	-.116	.796	.058
1	다른 아이와 노는 것을 즐겼다.	-.026	.076	-.095	.754	.058
8	다른 아이와 함께 있을 것을 즐겼다.	-.055	.149	-.080	.721	.108
9	집안 행동이 잘 어울렸다.	.120	.146	.017	.706	.103
7	외향적이었다.	.195	.068	-.151	.622	-.040
2	어린아이에 자신모임을 가졌다.	.170	.311	-.122	.554	-.039
3	소속감을 느꼈다.	.212	.180	-.020	.553	.051
5	다른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고 느꼈다.	.162	.417	.008	.527	-.110
15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기 위해 노력적으로 반응했다.	.090	-.035	.288	-.090	.679
13	다른 아이들이나 나를 괴롭혔을 때 맞서 싸웠다.	.242	.071	-.169	.197	.603
10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응했다.	.195	-.168	.177	.120	.590
14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 반응했다.	-.056	.325	.010	-.096	.583
16	집안에 소속하기 위해 강인행동이 있었다.	.285	.123	.236	-.019	.557
11	다른 아이들과 많이 싸웠다.	.379	-.089	.110	.067	.536
12	벌을 받으면 더욱 고집을 부렸다.	.247	-.147	.256	.115	.522
17	복수를 했다.	.224	.018	.205	.093	.487
	고유값	5.138	5.118	4.775	4.136	3.169
	설명분산	11.678	11.632	10.852	9.399	7.203
	누적분산	11.678	23.310	34.162	43.561	50.764

표 3. 생활양식 척도의 문항번호와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Cronbach α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1,2,3,4,5,7,8,9	.846
잘지내기	10,11,12,13,14,15,16,17	.775
책임맡기	18,19,20,21,22,23,24,25	.890
인정받기	26,27,28,29,30,31,32,33,34,35,36	.861
조심하기	37,38,39,40,41,42,43,44	.862
전체	43문항	.872

2.2 인생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신과 타인존재나 능력에 대한 존중, 신뢰, 가치부여의 정도를 의미하는 인생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류분석협회의 우재현[57]이 번의 교류분석의 기본 개념에 충실하고 인생태도의 요인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표준화한 총40문항을 활용하였다. 네 가지 인생태도 요인은 타인부정(You're not OK=U-), 타인긍정(You're OK=U+), 자기긍정(I'm OK=I+), 자기부정(I'm not OK=I-) 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 개발자인 우재현[57]이 타당화한 40문항 중 검사도구가 교류분석 주요개념인 인생태도 이론 및 그 요인을 잘 반영한 검사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주성분분석법과 베리맥스 직교회전법에 의해 실시한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분산의 46.90%가 설명되었다. 특히 전체 설명력이 50%이하로 낮게 나타나 요인부하량이 .40이하로 나타난 1번, 35번 문항과 타인긍정(U+)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문항 중 18번 문항은 자기긍정(I+), 자기부정(I-) 요인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을 제외한 총37문항만이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요인구조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본 연구에 최종 적용되었다. 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재현[57]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α는 .64이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며, 하위요인별 점수범위는 10-5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문항 신뢰도는 .91, 하위척도별로 타인부정 .82, 타인긍정 .84, 자기긍정 .77, 자기부정 .87로 나타났다. 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인생태도 척도의 문항과 요인별 부하량

NO	문항내용	요인			
		자기부정	자기긍정	타인부정	타인긍정
27	나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743	.154	-.088	.125
23	지금 생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29	.215	.115	.127
28	누구 앞에서도 불만거리나 걱정 일고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말한다.	.682	.140	-.060	.119
26	얼굴이나 모습에 태만이 있다고 생각한다.	.664	.242	-.133	-.051
25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편이다.	.646	.149	-.036	.200
29	대개 다른 사람이 하는 인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612	.016	-.045	.303
21	나 자신을 좋아한다.	.607	.285	.084	.178
24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590	.243	.114	.234
30	실수나 실패도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없이 다시 시킨다.	.580	.038	.112	.126
22	태어나서부터 소중하게 길러졌다고 생각한다.	.554	.292	.118	.199
32	나의 태생은 그치 환경이 못났다고 생각한다.	.252	.672	.194	.252
31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하는 인간이다.	.291	.661	.106	.063
39	살아있는 사람인데 함께 일을 잘 해낼 수 없으리다 생각한다.	-.199	.638	-.032	-.093
34	소극적 성격로 살아가기 두려워 무슨 일이나 손 대지 않으려 한다.	.389	.606	.112	.171
40	나 자신을 그치 존경할 수가 없다.	.446	.603	.140	.053
33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380	.594	.134	.155
38	매사 자신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한다.	.372	.591	.197	.089
36	어떤 일이나 혼자서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	.316	.577	.227	-.084
37	용모에 자신이 없다.	.366	.520	.058	.004
18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함께 일을 잘 해 낼 수 없다.	.385	-.428	.212	.181
35	자신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잘 후회한다.	.286	.367	.322	-.237
3	상행이 내기 없는 데로 해 주지 않으면 배우기가 난다.	-.007	.003	.704	.059
4	다른 사람의 정감이나 면모를 자부하는 편이다.	.048	.066	.671	-.034
7	동료에 비해 내가 타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엄중하다.	-.008	.112	.647	-.076
8	후배나 동생 친구나 나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019	-.036	.642	.012
10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인품이나 일을 잘 해 보려는 경향이 있다.	.070	.138	.640	.005
6	상하거나 형이나 다른 사람은 배척나 강하게 반대한다.	-.060	.224	.639	.282
2	때때로 친구나 상사를 욕하거나 골뎀 못하게 할 경우가 있다.	.015	-.196	.579	-.099
9	그치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편이다.	.159	.180	.535	.126
5	다른 사람을 믿는 일은 나쁜 버릇을 키우므로 하지 않는다.	.012	.231	.533	.221
1	근본적으로 인간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한다.	-.025	.053	.356	.014
14	이유리 에를지라도 누구나 자신의 생애를 기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020	.103	-.087	.770
19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의지할 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038	.149	.054	.741
15	사람들이 자기주장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114	.112	-.120	.707
20	친구가 어떤 일에 실패해도 언제까지나 도와주지 않고 격려한다.	.168	.060	.223	.600
16	대개로 다른 사람과 인연관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94	.179	-.032	.582
12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그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써 살려고 하고 있다.	.371	-.113	.023	.569
17	남의 일에 잘 되면 나도 기뻐해 준다.	.248	.000	.311	.552
11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사정이나 나와 달라도 특별히 살피는 편이다.	.179	-.220	.020	.541
13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는다.	.323	-.178	.156	.391
고유값		9.441	3.947	3.379	1.992
설명분산		23.604	9.668	8.448	4.960
누적분산		23.604	33.472	41.920	46.900

표 5. 인생태도 척도의 문항번호와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Cronbach α
타인부정	2,3,4,5,6,7,8,9,10	.822
타인긍정	11,12,13,14,15,16,17,19,20	.839
자기긍정	21,22,23,24,25,26,27,28,29,30	.765
자기부정	31,32,33,34,36,37,38,39,40	.867
전체	37문항	.907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5.0을 통해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검사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산출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둘째, 생활양식 변인과 인생태도 변인에 대해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단순상관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 변인과 인생태도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인생태도 요인을 기준변인으로 하고 생활양식 요인을 예언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인 간 상관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측정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생활양식, 인생태도 변인 간 상관

변인	생활양식					인생태도			
	소속하기/ 사회적관심	잘지내기	책임 내기	인정 받기	조심 하기	타인 부정	타인 긍정	자기 긍정	자기 부정
소속하기/ 사회적관심	1.00								
잘지내기	.15**	1.00							
책임맡기	.32**	.48**	1.00						
인정받기	.42**	.03	.26**	1.00					
조심하기	-.21**	.36**	.14**	-.23**	1.00				
타인부정	.03	.46**	.31**	.07	.30**	1.00			
타인긍정	.30**	-.12	.05	.36**	-.19**	-.21**	1.00		
자기긍정	.42**	-.04	.20**	.45**	-.30**	-.13	.45**	1.00	
자기부정	-.28**	.21**	.01	-.18**	.34**	.32**	-.26**	-.53**	1.00

*p<.05, **p<.0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하위 변인들 간에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생활양식 하위변인 중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은 타인긍정, 자기긍정의 인생태도 하위변인들 간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기부정과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타인부정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생활양식 하위변인 중 잘지내기는 타인부정 및 자기부정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타인긍정과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자기긍정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생활양식 하위변인 중 책임맡기는 타인부정 및 자기긍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타인긍정 및 자기부정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생활양식 하위변인 중 인정받기는 타인긍정 및 자기긍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기부정과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타인부정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생활양식 하위변인 중 조심하기는 타인부정 및 자기부정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타인긍정 및 자기긍정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대체로 소속하기/ 사회적 관심 및 인정받기 생활양식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자타긍정의 인생태도와 관련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잘지내기 및 조심하기 생활양식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자타부정의 인생태도와 관련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 변인과 인생태도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2.1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생활양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600, p<.001$) 하위요인으로 인정받기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F=11.766, p<.01$), 조심하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F=12.566, p<.001$). 이는 여학생의 경우 인정받고자 하는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반면에 남학생은 조심하고자 하는 생활양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인 인생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7.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

	소속하기 사회적관심		잘지내기		책임맡기		인정받기		조심하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남학생 (N= 201)	28.10	6.00	21.26	5.28	18.63	6.41	36.89	7.32	16.61	6.59
여학생 (N= 208)	28.63	5.20	20.19	5.53	19.13	6.31	39.45	6.54	14.33	5.33
F	.764		3.298		.541		11.766**		12.566***	
p	.383		.070		.463		.001		.000	
p<.01, *p<.001, F= 4.600, p= .000, Wilks' 랏다= .936										

2.2 성별에 따른 인생태도의 차이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인생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305, p<.05). 하위요인으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타인부정(F=5.304, p<.05), 타인긍정(F=7.897, p<.01), 자기긍정(F=5.208, p<.05), 자기부정(F=6.107, p<.05)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인 인생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8. 성별에 따른 인생태도의 차이

	타인부정		타인긍정		자기긍정		자기부정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남학생 (N=201)	29.47	5.44	30.09	5.58	31.33	7.21	30.71	6.34
여학생 (N=208)	30.89	6.06	31.70	5.15	33.11	7.32	32.50	7.13
F	5.304*		7.897**		5.208*		6.107*	
p	.022		.005		.023		.014	
*p<.05, **p<.01, F=3.305, p=.011, Wilks' 랏다=.963								

3. 생활양식과 인생태도와의 관계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하위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인생태도 하위변인들인 타인부정, 타인긍정, 자기긍정, 자기부정을 기준변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생활양식과 타인부정

Durbin-Watson 값이 1.846으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 이므로 중다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타인부정을 기준변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 요인이 타인부정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25%(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24%)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²=.249, F=35.388, p<.001). 생활양식 하위요인들이 타인부정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잘지내기(β=.30, ΔR²=.200, t=5.25, p<.001)가 가장 높은 예측을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책임맡기(β=.19, ΔR²=.027, t=3.50, p<.01), 조심하기(β=.16, ΔR²=.021, t=3.01, p<.0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잘지내기, 책임맡기, 조심하기의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타인부정적 인생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9. 타인부정에 대한 생활양식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ΔR ²	t	p
	B	표준오차	β				
잘지내기	.34	.06	.30	.200	5.25	.000	
책임맡기	.18	.05	.19	.027	3.50	.001	
조심하기	.15	.05	.16	.021	3.01	.003	
(상수)	42.88	1.27			33.79	.000	
R ² (adj R ²)= .249(.242), F = 35.388 p<.001							

3.2 생활양식과 타인긍정

Durbin-Watson 값이 1.878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 이므로 중다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타인긍정을 기준변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 요인이 타인긍정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16%(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5%)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²=.158, F=20.766, p<.001). 생활양식 하위요인들이 타인긍정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인정받기(β=.24, ΔR²=.102, t=4.23 p<.001)가 가장 높은

예측을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잘지내기 ($\beta=-.19$, $\Delta R^2=.027$, $t=-3.64$, $p<.001$), 소속하기/사회적 관심($\beta=.19$, $\Delta R^2=.029$, $t=3.39$, $p<.0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정받기, 소속하기/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킬수록 타인긍정 인생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잘지내기를 발달시킬수록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 타인긍정에 대한 생활양식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ΔR^2	t	p
	B	표준오차	β			
인정받기	.18	.04	.24	.102	4.23	.000
잘지내기	-.18	.05	-.19	.027	-3.64	.000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18	.05	.19	.029	3.39	.001
(상수)	22.69	1.88			12.06	.000
R^2 (adj R^2)= .158(.151), $F = 20.766$ $p<.001$						

3.3 생활양식과 자기긍정

Durbin-Watson 값이 1.948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 이므로 중다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자기긍정을 기준변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 요인이 자기긍정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28%(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28%)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284$, $F=43.362$, $p<.001$). 생활양식 하위요인들이 자기긍정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인정받기($\beta=.29$, $\Delta R^2=.198$, $t=5.36$, $p<.001$)이 가장 높은 예측을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속하기/사회적 관심($\beta=.25$, $\Delta R^2=.058$, $t=4.82$, $p<.001$), 조심하기($\beta=-.17$, $\Delta R^2=.028$, $t=-3.56$, $p<.00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정받기,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자기긍정 인생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조심하기를 발달시킬수록 자기긍정의 인생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 자기긍정에 대한 생활양식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ΔR^2	t	p
	B	표준오차	β			
인정받기	.30	.06	.29	.198	5.36	.000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33	.07	.25	.058	4.82	.000
조심하기	-.21	.06	-.17	.028	-3.56	.000
(상수)	14.97	2.62			5.72	.000
R^2 (adj R^2)= .284(.277), $F = 43.362$ $p<.001$						

3.4 생활양식과 자기부정

Durbin-Watson 값이 1.995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 이므로 중다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자기부정을 기준변인으로 생활양식을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 요인이 자기부정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19%(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8%)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185$, $F=25.415$, $p<.001$). 생활양식 하위요인들이 자기부정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조심하기($\beta=.29$, $\Delta R^2=.120$, $t=4.52$, $p<.001$)가 가장 높은 예측을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속하기/사회적 관심($\beta=-.32$, $\Delta R^2=.045$, $t=-4.86$, $p<.001$), 잘지내기($\beta=.20$, $\Delta R^2=.019$, $t=2.83$, $p<.01$)로 나타났다. 이는 조심하기, 잘지내기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자기부정의 인생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소속하기/사회적 관심의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자기부정의 인생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2. 자기부정에 대한 생활양식의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ΔR^2	t	p
	B	표준오차	β			
조심하기	.29	.06	.25	.120	4.52	.000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32	.07	-.25	.045	-4.86	.000
잘지내기	.20	.07	.15	.019	2.83	.005
(상수)	31.10	2.29			13.56	.000
R^2 (adj R^2)= .185(.177), $F = 25.415$ $p<.001$						

V. 논 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인생태도와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간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히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및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자타긍정의 인생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잘지내기 및 조심하기는 자타부정의 인생태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사회적 관심 변인이 정신건강의 척도이며[22],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창의적, 독립적인 행동[14], 상대방의 가치인정 및 상호존중을 하였다란[35]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인정받기 변인이 자타긍정의 자율적 삶인 친밀 및 생산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잘지내기 및 조심하기 변인이 심리적 게임 및 폐쇄적인 삶의 유지를[51], 소속하기/사회적 관심과 인정받기 변인이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었다란[52] 연구결과들이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어린시절 잘지내거나 조심하기 생활양식이 추후 자율성이 억압된 수동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자타긍정의 자율적인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지지적 환경에서 상호협력하는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생활양식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변인의 차이를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본 결과,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는 조심스럽게 삶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 남녀 청소년들의 심리성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환경과 타인의 단서에 민감하고 비언어적 행동을 읽어내는데 능숙할 수 밖에 없는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전통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 인생태도의 차이와 관련하여 여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인생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타부정적인 인생태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58][59],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타인 부정은 높지만 자기긍정은 낮다는 연구결과[60]들과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 인생태도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연구결과들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기에 추후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인생태도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지내기, 책임맡기, 조심하기의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타인부정적 인생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책임맡기, 조심하기를 발달시킬수록 타인과 관계단절 등 폐쇄적 경향이 높으며, 특히 조심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주로 어린 시절 예측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런 좌절을 주는 가족환경에서 살아왔기에 환경과 타인으로부터의 단서나 비언어적 메시지에 민감해짐으로써 폐쇄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51]란 연구결과들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초기 어린시절 타인을 신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온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야 했기에 늘 다른 사람들과 잘지내고자 적절하게 행동하며 대립을 피하는 등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생활양식을 유지한 청소년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이 유발되면 심리적인 억압된 감정에 의해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가치 부여 및 평가를 하며 살아갈 가능성 또한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정받기,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타인긍정적 인생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에 잘지내기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규칙준수와 적합한 행동여부를 탐색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기에 타인의 가치와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인정욕구가 충족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타인과 건강한 교류를 하며[61][62], 잘지내고자 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긍정적 교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대립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 규칙과 상대에게 동의해 버리는 수준의 교류를 함으로써 타인과 심리적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51]란 연구결과들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초기 어린시절 잘지내기 생활양식을 발달시킬 경우 타인의 가치와 평가를 긍정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규칙준수와 적합한 행동여부 탐색 등 삶의 에너지를 역기능적으로 소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타인의 가치를 그대로 수용, 지지, 인정 협력하는 건강한 삶의 표본인 소속하기/사회적 관심의 생활양식이 발달된다면 추후 성인기에도 적응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인정받기,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긍정적 삶의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에 조심하기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매사 조심하는 경향이 있기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긍정적 삶의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타인으로 부터 긍정적 인정자극인 격려, 사회적 지지, 칭찬 등을 받은 경우 자기존중과 행복감의 증진, 지적 능력 발휘, 학교생활을 잘하며[1][63], 혼란된 삶을 펼치는 부정적 인생태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에 기초하여 적응적인 삶을 유지한다[40]란 연구결과들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삶의 기본적인 인정욕구가 충족되어 있기에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조심하기, 잘지내기 생활양식을 발달시킬수록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평가절하 하는 부정적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에 소속하기/사회적 관심은 초기 어린시절부터 격려와 지지적 환경속에서 세상사에 대한 관심 및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유지해 왔기에 부정적인 삶의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조심하기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시절 예측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런 좌절을 주는 가족환경에서 살아왔기에 환경과 타인으로부터의 단서나 비언어적 메시지에 민감해 짐으로써 폐쇄적 교류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51], 조심하기와 우울이 정적상관을 보이고 소속하기/사회적 관심과 우울이 부적상관을 보였다[56]란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였다. 또한 부적응적인 대인간 교류패턴이 종종 고통스럽지만 불안을 피하고 자신의 이미지 보호를 위한 방어의 일환으로서 이를 만

복적으로 사용하며[64],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어린시절 가족에 대한 초기 기억이 긍정적 이었다[53]란 연구결과들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조심하기 경향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초기 어린 시절 주양육자로부터 실수를 하는 경우 엄격한 규제 및 구제불능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들어 왔기에 심리적으로 자기비하, 우울, 감정억압, 열등감 및 적대감이 내재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반복적인 실패경험이나 인간관계의 갈등 등 부적응적인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생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 변인을 검증한 결과 인정받기, 소속하기/사회적 관심 변인이 TA의 상담목표인 자타긍정의 자율적인 실존적 삶을 유지시키는 것[65]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자율성 증진 TA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구안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타인의 반응에 순응하는 등 부적응적인 패자각본의 삶과 관련이 있는 잘지내기, 조심하기, 책임맡기 생활양식이 초기 어린시절 긍정적 인정자극의 결핍에 기인한다는 점과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부적응적 삶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부정적 인생태도를 유지하는 청소년의 경우 끊임없는 무조건적 긍정적 인정자극인 격려의 제공 및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긍정적 인생태도로의 이동을 조력할 필요가 있다 [61]고 본다. 셋째, 지금까지의 생활양식을 다룬 연구들이 주로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에 따른 연구들이었고, 초기기억에 따른 연구들도 시간구조화와 학교적응 등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인생태도를 주제로 다룬 연구들은 거의 없었기에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며, 자료수집 방법인 자기보고식의 한계로 인해 응답자의 방어적인 태도와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사

및 면담 등의 질적인 연구방법도 함께 실시할 필요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가 인생태도를 예측하는 생활양식 변인들의 탐색에 국한함으로써 상담개입을 위한 방안 모색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과 관련이 깊은 TA의 주요개념인 인생각본, 교류패턴, 스트로크 변인 중 어떤 변인이 조절 및 매개 변인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가 초기 어린 시절 정신건강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주양육자의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변인을 함께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의 생활양식과 인생태도 변인을 함께 검증한다면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및 부모상담의 주요단서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미례, “교류분석(TA)이론에 기초한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와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2호, pp.183-200, 2008.
- [2] 김진아, 한귀례,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 구조”, 상담학연구, 제15권, 제6호, pp.2379-2399, 2014.
- [3] 정옥분, *전생애발달의 이론*, 학지사, 2004.
- [4] T. M. Achenbach,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velopment of Psychiatry, 1991.
- [5] 강승희, “중학생의 부모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제58권, 제3호, pp.1-29, 2010.
- [6] R. W. Larson, G. Moneta, M. Richard, and S. Wilson, “Continuity stability and change in daily emotional experience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73, pp.1151-1165, 2002.
- [7] 락금주, *흔들리는 20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8] 권현실, 안명희,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 과편화에 미치는 영향: 자기구조와 방어기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4권, 제5호, pp.2699-2714, 2013.
- [9] S. J. Lopez and C. G. McKnight, Moving in a positive direction: Toward increasing the utilit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5, Article 17, Retrieved September 4, 2002, from <http://journals.apa.org/prevention/volume/pre0050019c.html>
- [10] M. Seligman,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Grove Press, 2011.
- [11] C. M. Steiner, “Transactional analysis: An elegant theory and practice,”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Vol.35, No.2, pp.4-5. 2005.
- [12] E. Berne,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Grove Press, 1961.
- [13] I. Stewart and V. Joines, *TA Today: a New Introduction to Transactional Analysis*, Life space, 1987.
- [14] T. J. Sweeney, *Adlerian counseling: A practitioner's approach*,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Accelerated Development, 1998.
- [15] 정민, 노안영, “생활양식, 심리유형(MBTI)과 생활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15권, 제4호, pp.693-710, 2003.
- [16] 김형일, *중학생의 생활양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17] 박경순, *중학생의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18] 정민, *대학생의 인생과제를 중심으로 한 생활양식 검사의 개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19] 김준경, “Adler식 놀이치료 과정의 생활양식 탐색을 위한 이론적 고찰”, 놀이치료연구, 제3권, 제2호, pp.13-34, 1999.
- [20] T. A. Harris, *I'm OK-You're OK*, Avon Books, 1969.

- [21] J. Dinkmeyer and L. Sperry,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n integrated, individual psychology approach*, Prentice Hall, 2000.
- [22] R. W. Lundin, *Alfred Adler's basic concepts and implication*, Mark Paterson and Associates, 1989.
- [23] H. L. Ansbacher and R. R. Ansbacher,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Harper Torchbooks, Harper and Row, 1967.
- [24] 이옥영, *중학생들의 생활양식, 비합리적 신념 및 부적응 행동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25] 정경용, *적응유연 청소년의 생활양식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26] B. H. Shulman and H. H. Mosak, *Manual for life style assessment*, Accelerated Development, 1988.
- [27] 나미현, *생활양식, 가족적응 유연성,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8] H. H. Mosak and R. D. Pietro, *Early recollections: Interpretatives method and application*, Routledge, 2006.
- [29] M. S. Wheeler, R. M. Kern, and W. L. Curlette, *BASIS-A Inventory*, highlands, NC:TRT, 1993.
- [30] 김춘경, *아들러 아동상담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6.
- [31] 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송현중, 강영신, 오명자, *아들러 상담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5.
- [32] E. Berne, *Games people play*, Grove Press, 1964.
- [33] F. Ernst, "The OK corral,"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Vol.1, No.4, pp.33-42, 1971.
- [34] V. Joines and I. Stewart, *Personality & Adaptations*, Kegworth: Lifespace, 2002.
- [35] S. Newell and D. Jeffery, "Behavior Management in the Classroom: A Transactional Analysis Approach," PA: Taylor & Francis, 2002.
- [36] H. J. Pai, "The effect of group rational emotional therapy on the life-posi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sych & Mental Heal Nurs*, Vol.10, No.30, pp.391-405, 2001.
- [37] E. Berne, *What do you say after you say hello?*, Grove Press, 1972.
- [38] I. Stewart, *Transactional analysis counselling in action (2nd ed.)*, Sage Publications, 2008.
- [39] K. J. Kaplan, N. Capace, and J. D. Clyde, "A bidimensional distancing approach to TA,"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Vol.14, No.2, pp.114-119, 1984.
- [40] A. B. Harris and T. A. Harris, *Staying OK*, Harper & Row, 1985.
- [41] C. M. Steiner, "The OK Position: Freedom, Equali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Vol.42, No.4, pp.294-297, 2012.
- [42] P. Ware, "Personality adaptations,"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Vol.13, No.1, pp.11-19, 1983.
- [43] E. Berne, "Classification of positions," *Transactional Analysis Bulletin*, Vol.1, No.3, p.23, 1962.
- [44] T. White, "Life Positions,"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Vol.24, No.4, pp.269-276, 1994.
- [45] C. Davidson, "I'm polygonal OK," *Intand*, Vol.7, No.1. pp.6-9, 1999.
- [46] 김용애, *이코그램에 나타난 중학생의 자아상태와 인생태도 및 인간관계 만족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47] 김춘자, *청소년의 인생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적응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48] 김민자, *교류분석의 인생태도와 상담기대감의 관계*,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49] 박지현, *근로청소년의 인생태도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50] 양명숙, 이규서, “청소년기 군인자녀의 환경적 특성이 인생태도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2권, 제4호, pp.449-462, 2003.

[51] 김미례,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시간구조화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10권, 제3호, pp.1453-1470, 2009.

[52] 오익수, “초등학생의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7권, 제2호, pp.633-645, 2006.

[53] C. K. Chandler and W. K. Willingham,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arly childhood family influence and the established life-style,”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Vol.42, pp.388-394, 1986.

[54] A. R. Bruhn and S. Davidow, “Earliest memories and the dynamics of delinquen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7, pp.476-482, 1983.

[55] A. J. Clark, Early recollections: Theory and practice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Routledge, 2002.

[56] D. Morton-Page and S. M. Wheeler, “Early loss, depression, and lifestyle themes,”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Vol.53, pp.58-66, 1997.

[57] 우재현, 심성개발을 위한 교류분석 훈련 프로그램, 정암서원, 1995.

[58] 윤선옥, 자아상태, 생활자세의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59] 장선심,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인생태도와 성격특성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60] 유성희,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생활태도와의 관계,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61] R. F. Baumeister and M. R. Leary,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y, Bulletin, Vol.117, No.3, pp.497-529, 1995.

[62] M. James and D. Jongeward, Born to Win: Transactional Analysis with Gestalt Experiments, Reading: Addison-Wesley, 1977.

[63] 전영철, TA-stroke 훈련 프로그램이 자아상태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64] L. M. Horowitz,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66, No.2, pp.283-300, 1996.

[65] C. Lister-Ford, Skill in transactional analysis counselling & psychotherapy, Sage Publications, 2002.

저 자 소 개

김 미 례(Mi-Rye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전남대학교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2006년 2월 : 전남대학교 상담심리전공(교육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 2015년 1월 ~ 현재 : 호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 <관심분야> : 교류분석상담, 진로상담, 상담슈퍼비전